

문화광장



박 태 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내'가 자각할 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다

필자가 관리하고 있는 명상센터 잔디밭 가까이 이웃집 뒷밭이 있다. 그 밭과 잔디밭 사이에 돌담이 있고 돌담 가운데쯤 20여년 자란 큰 녹나무가 있었다. 이 녹나무는 명상센터에 정자나무처럼 그늘도 주고 그 아래에 쉴 공간도 줘서 매우 이롭지만 이웃 밭에는 큰 장애가 됐다. 나무 그늘로 인해 밭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몇 차례 밭주인으로부터 그늘로 인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니 나무를 옮겨든지 베어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아까워서 뒷밭 쪽으로 향한 나뭇가지만 잘랐다. 그러다보니 나무모양이 부채꼴처럼 반쪽이 되었다. 반쪽이든 온 쪽이든 그 밭에 그늘이 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밭주인이 필자를 보자마자 마치 아이들 나무라듯 야단을 쳤다. 잘못했으니까 야단을 맞아도 별 대꾸를 못한 채 사과하고 물러섰으나 70을 넘은 나이에 야단을 맞는 게 무안하고 속상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계속 욕을 먹어야 하니 아깝더라도 이웃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녹나무를 베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한 동안은 베어낸 녹나무 자리를 보면 마음이 아파 견디기 힘들었다. 차를 운전하며 그 밭 옆을 지나갈 때 주인을 보면 인사도 안한 채 그냥 지나쳐 버렸다. 정말이지 얼굴을 맞대기조차 싫었다. 그러

면서 한편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다니, 아까운 인생을 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늦었지만 진작 나무를 베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사실 그 동안 여러 차례 나무를 옮겨라는 말을 들을 때는 자신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 잘 키운 나무를 베는 것이 아깝기도 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정자나무로 이용하기에 좋았으므로 '어떻게 되겠지'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은 '나'라고 하는 '에고'를 내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녹나무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잔디밭 대신 농작물을 가꾸고 있었다면 애당초 녹나무를 심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땅

에만 문제가 없다면 남의 땅이야 어찌된 상관이 없다는 경계로 인한 에고가 작용하여 밭주인의 심정을 간파했던 것이다.

그 동안 내 것이라는 에고를 내려놓았다면 이웃 밭의 작물이 보였을 것이고, 그늘 아래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서 욕을 먹지 않고도 녹나무를 베어냈을 것이다.

필자는 '나'라고 하는 '에고'로 인해 이웃 간의 관계가 무너질 뻔한 경험을 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깨어나 녹나무를 뺐으로써 훼손된 이웃관계를 회복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 간에 거리가 멀어졌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으니 지나간 해에 내 것이 아니고 옮겨진 에고를 벗어버리자. 벗은 순간 '우리'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설

'만남 자제' 딱 한 주... 주말 완화 '분수령'

이번 주말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응행을 확실히 제압하는 한 주가 될 지 주목된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대응행은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감염추세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할 상황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철저한 사적모임 금지와 방역수칙 준수로 뚜렷하게 진정국면을 보인다면 내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또는 집합금지 완화로 도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대응행은 최근 뚜렷한 진정세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응행이 최근 연속 8일째 10명 이하로 진정 평가를 받는 것이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달 22일 33명 발생으로 정점에 달했고,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 넘게 20명 넘는 확진자를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여 지역사회를 극도의 불안에 떨게 했다. 이후

연말연시 둔화세로 인해 이달 1일 13명, 3일 10명 발생 후엔 계속 한 자릿수 발생 추이다.

문제는 최근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 발생이 이번 한주동안 확실하게 제압하는 단계까지 가느냐 여부다. 지난 3일까지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이번 주말에는 다음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여부를 앞두고 있어 도민 모두에게 조미의 관심사다. 지역사회는 내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집합금지 완화로 부분적인 일상생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시민, 관광업계 등의 고통도 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통'이 '희망'으로 바뀌려면 지속적인 소규모 감염, 무증상 감염 사례 등에서 유의미할 정도의 '방역 성과'는 그 전제조건이다. 이번 주 도민들의 '만남 자제'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방역수칙임을 잊어서 안된다.

가격 하락에 한파까지 덮친 월동채소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걱정이 갈수록 대산이다. 최근 제주를 강타한 한파로 농민들의 마음이 얼어붙고 있다. 폭설을 동반한 한파가 5일간 지속되면서 제주산 월동채소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동채소 가격이 급락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덮치면서 농민들의 속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이어진 북극발 한파와 폭설로 제주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6일부터 10일까지 한파는 14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다. 해안지역에도 10cm 이상의 눈이 쌓였다. 이번 한파는 제주 전 공영주차장 100여 곳에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150명을 배치해 주차장 내·외부 환경정리, 올바른 주차 안내 등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서귀포형 뉴딜, 공유·개방주차장 조성사업 등 향후 추진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도 적극 협력을 약속, 현행종기차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월동무·마늘·당근·양파 등은 냉해와 습기로 피해를 볼 수 있고 생리 장애와 세균성 병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도 습기 피해와 함께 균핵병, 검은색곰팡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한파는 맹위를 떨쳤다. 57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때문에 농작물 냉해 피해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의 경우 눈이 덮혀 얼어있는 상태지만 조만간 눈이 녹으면 피해 규모가 드러날 것이다. 월동무는 2018년 2월에도 폭설과 한파로 냉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더욱 우려되고 있다. 비단 월동채소 피해만이 아니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노지감귤도 눈을 맞으면서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뜰이나 월동채소 가격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한파까지 들이닥치면서 월동채소 피해는 물론 비닐하우스

열린마당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더 좋아졌어요



이 도 경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민원팀장

코로나19 위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다. 우리 종합민원실도 바닥에는 2m 거리 두기 테이핑과 의자에는 한 칸씩 띄어 앉기 안내 표지석이 놓여져 있다. 혹시 모를 신종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행정에서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동안 시민분들은 비대면을 통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건수는 총 15만2356건으로써 2019년 대비 2만1697건이 증가했다. 현재 서귀포시는 관내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최대 112종으로써 설치 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가로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으로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으로써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다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발급 받아 제시하게 되면 대체 신분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도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도 안전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수료의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신용 카드기의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 비치 및 방역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세상이지만, 서귀포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계속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및 비대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 분들에게 감사 인사의 말씀을 전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민주당·국민의힘 제주도당 '배·보상' 입장차

4·3특별법 개정 협력엔 공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1일 각각 논평을 통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공감했지만 배·보상 조항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

민주당은 "원희룡 지사와 오영훈 국회의원이 초당적 협력 약속을 적극 환영한다"며 "개정안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보상 조항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조문을 담은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백금탁기자

제주산 노지감귤 소폭 오름세

이달 들어 제주산 노지감귤 가격이 지난해 보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

지난달 초 제주 노지감귤 가격은 평년 평균 가격보다 20~30%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달 전국 9대 도매시장 5kg 상자당 평균가격은 71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87원보다 소폭 오름세를 유지.

농협 관계자는 "최근에는 8000원으로 지난해 1월 평균가격 6687원과 2018년산 평균가 7540원보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날씨가 인한 출하량 감소에 의한 일시적인 가격회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

'동네 주차장 보안관' 배치

서귀포시는 11일 시청 3층 셋마당에서 서귀포시니어클럽과 함께하는 '서귀포형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사업 협약을 체결.

서귀포시는 협약에 따라 지역 내 공영주차장 100여 곳에 '우리동네 주차장 보안관' 150명을 배치해 주차장 내·외부 환경정리, 올바른 주차 안내 등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서귀포형 뉴딜, 공유·개방주차장 조성사업 등 향후 추진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도 적극 협력을 약속, 현행종기차

부 고

고기욱 아버지 고원순(前 고원순 정형외과 원장·향년 73세)께서 서기 2021년 1월 10일 00시 51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 하셨습니다.

- 일 포: 2021년 1월 11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1월 12일(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발인장소: 강남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2호실
장 지: 경기도 이천시 에덴낙원

- 배우자 박경임
아 들 고기욱 사 위 정원태
딸 고민정 사 위 정원태
은 정 흥석호
은 나 임신권
손 자 흥이안 손 녀 정예원
임준무 정예진
임준수 흥시안

* 연락처 : 박경임 010-3694-8182
계좌번호 : 국민은행 701210721521 (예금주 박경임)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Table with 2 columns: 품종 (유라조생, 감평, 탱자모목, 성하홍조생, 성전온주, 천해향, 황금향) and 연수 (1,2,3년생, 1,3,4년생, 1년생, 1년생, 1년생, 4,5년생,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상품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향,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다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아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유주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